고운사 복구 염원 3000 포교사 철야 정진

포교사단, 9월 13~14일 고운사
철야 '제21회 팔재계수계법회'
자광 대종사 지계 실천 당부
462명 신규 포교사 품수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사 포교사 3000여 명이 폭우 속 철야 정진을 통해 지난 3월 산불로 전소된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 3000여 명이 폭우 속 철야 정진을 통해 지난 3월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13~14일 의성 고운사에서 '제21회 팔재계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신규 포교사 462명을 포함한 전국에서 결집한 포교사 3000여 명은 부처님 앞에서 계율을 지켜 불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화마가 할퀴고 간 고운사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이번 팔재계수계대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으로 법상에 올랐다. 먼저 팔재계 의미를 설한 자광 대종사는 "하룻밤만 이라도 정성을 다해 계를 지키며 마음을 밝혀야 한다"며 "부처님은 자비로 이끄는 스승이며, 청정한 스님들은 인천의 복전이며, 보시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 치사에서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법석에서 수행과 중생 구제에 진력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곳곳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0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 에서는 462명의 신규 포교사가 품수증과 단복을 받았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3000여 포교사를 대표해 복원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발원하며 단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선명상 보급자이자 전법가로서 역할을 강조한 김영석 단장은 포교사들에게 "탈종교화 시대, 불자와 출가자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단을 외호하며 종책 사업에 기여하자"고 했다.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사단 연수특강 일환으로 마련된 특별강연에서 "포교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한국불교 중흥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사회 곳곳에서 지역단별로 활발한 포교를 펼쳐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여 나가자"고 했다.

13일 오후 6시 시작된 팔재계법회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6시까지 철야 정진으로 이어졌다. 포교사들은 고운사 화마 피해 극복을 기원하는 발원지를 작성하고 2분 선명상, 대념처경 독송 등을 이어가며 정진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참가자 대부분은 밤을 지새며 정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제30회 일반 포교사 품수식'도 열려 462명의 신규 포교사가 품수증과 단복을 받고 정법수호를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9월 15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를 입재했다.

비구니회 하반기 수행결사 입재

9월 15일, 법룡사서 입재식
서광 스님 법사로 12회 강의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9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입재했다.

이번 수행결사에서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대승기신론과 유식 30송에 담긴 핵심 명상수행'을 12회에 걸쳐 강의한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6회는 '유식 30송과 명상'을, 6회는 '대승기신론과 명상'을 주제로 공부한다.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증 2급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입재식에 참가한 대중들은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문'을 낭독하며 "부처님 길을 따르는 수행자이자 청정승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신심과 발원은 후대에 이르러 또 다른 결사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정승가공동체 결사의 주인공으로서 회향하는 날까지 함께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광 스님은 대승기신론과 유식을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나와 나의 삶, 그리고 관계에 대해 성찰할 것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양력 정기법회' 주제 포교 종책 연찬회

조계종, 9월 24일 아미드호텔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6월 예정됐던 제85차 포교 종책 연찬회를 9월 24일로 변경해 개최한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법회 활성화 방안-양력 정기법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첫 발제는 김포 붓다정사 주지 지월 스님이 '법회의 중요성과 양력 법회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박영동 전 영석고 교법사가 맡는다.

두 번째는 영천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이 '법회 사례와 현대적 법회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전 월간 '설법' 발행인 동출 스님, 김관태 산림연구소장이 나선다.

임은호 기자

월정사 전나무숲서 진신사리 이운 삼보일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10월 18일 삼보일배 봉행
1500명 동참…1km 행렬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삼보일배로 순례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진신사리 이운 삼보일배'를 봉행한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10월 17~19일 진행되는 월정사 문화축전의 일환이다.

'하심의 미학과 가피의 추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삼보일배는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론 화합과 불보살의 가피를 기원하는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 세조와 의숙 공주의 원으로 국보인 상원사 문수동자상에 봉안됐다가 현재 월정사성보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월정사 측은 연(輦)에 진신사리와 〈금강경〉을 함께 모셔 경내 마련하는 특설무대로 이운, 참가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측은 이번 삼보일배에 불자를 비롯한 시민 150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렬 중간 중간 인솔 스님 50여 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삼보일배는 약 1km 진행되며,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인 '월정사 탑돌이'를 함께하며 마무리된다. 동참은 월정사 기도신행국으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접수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겐 무릎 보호대와 저녁공양이 제공된다.

삼보일배를 이끄는 월정사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풍광의 최고 사찰림"이라며 "천혜의 풍광에서 잘 정비된 황톳길에 스스로를 하심으로 내려놓고 조선 최고의 불사리를 이운하며 진행되는 대규모 삼보일배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피어나는 공덕의 복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한암 스님이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1931년 발족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양회(봉찬회)'에서 시작됐다. 매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신행결사체로, 2023년 3월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참인원이 8000세대에 달하며 매달 전국에서 평균 2500명 불자가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에 참여하고 있다. 033-339-6791

임은호 기자

사노위,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 추모

9월 15일, MBC 앞 추모문화제
"노동자 차별 해소 방송국 의무"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 9월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MBC 고 오요안나 1주기 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추모제에 동참,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15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유서와 통화 내용,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모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 씨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안형준 MBC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기상캐스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MBC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에 대해 유족과 단체들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선우 스님은 "방송의 공공성,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방송국 내 노동자들에 대한 지독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MBC 사장에게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MBC가 되기 위한 길은 내부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31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
(하반기분 12월 지원 예정)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보험료 미지원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님
※ 신규지원 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9(2025)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